

2011년 국외(美國)연수 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 연수개요	-----	1
□ 연수일정 및 연수자	-----	2
□ 토의사항 및 향후계획	-----	3
□ 정책제안	-----	4
□ 연수국가 개요	-----	5
□ 연수도시 일반현황	-----	6
□ 한인단체 및 주요시설 현황	-----	6
□ 사진첩	-----	8
○ 재외한민족센터 방문		
○ 공립중학교 방문		
○ 하수처리장 방문		
○ 주 상무차관(지미 리) 면담		
○ 주 하원의원(마크 김) 면담		
○ 공원시설(벤치) 및 도로시설		
○ 워싱턴 현지신문 게재 자료		

□ 연수개요

○ 연수목적

- 공간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한 해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워싱턴(버지니아)에 있는 재외한민족센터의 초청을 받아 방문
- 아울러 현재 공간에너지를 통해 과천시 상수도 수질개선과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방문(과천시의회와 공간에너지센터 협약체결 : 2011. 1. 14)

○ 연수기간 : 2011. 9. 14(수) ~ 9. 24(토) / 9박11일

○ 방문국가 및 지역

- 美 國 (버지니아 주)
 - ※ 연수일정표 참고

○ 연수인원 : 2명

연 번	직 위	성 명	일 정
1	의 원	안 중 현	9.14~9.24
2	전문위원	최 홍 근	9.14~9.24

○ 주요 방문기관

- 버지니아 주 상무부 차관 및 하원의원 방문
- 재외한민족센터 방문
- 카운티 하수처리장 방문
- 버지니아 홈즈중학교 방문

□ 연수일정

일 자	일 정	비 고
제 1 일 9. 14 (수)	- 인천공항 출발(12:40) - 워싱턴 달라스공항 도착(15:25)	
제 2 일 9. 15 (목)	- 공간에너지 간담회(개요설명, 자유토론) - 세계녹색은행 추진 간담회	
제 3 일 9. 16 (금)	- 공간에너지 간담회(활용방안, 의원면담 협의) - 세계녹색은행 추진 간담회	
제 4 일 9. 17 (토)	- 워싱턴 DC 둘러보기 - 재외한민족센터 이사장 취임식(이은재 이사장 주제발표)	
제 5 일 9. 18 (일)	- 예배참석(자유시간)	
제 6 일 9. 19 (월)	- 카운티 하수처리장 방문 - 재외한민족센터 방문	
제 7 일 9. 20 (화)	- 버지니아 홈즈중학교 방문 - 주 상무차관 JIMMY 리 면담	
제 8 일 9. 21 (수)	- 주 하원의원 Mark 김 면담	
제 9 일 9. 22 (목)	- 세계녹색은행 기자감담회 - 평가 및 결산회의	
제 10 일 9. 15 (금)	- 워싱턴 달라스공항 출발(06:40)	
제 11 일 9. 15 (토)	- 인천공항 도착(15:30)	

□ 연수 참가자 명단 (5명)

- 과 천 시 의 회 : 안중현 의원, 최홍근
- 공간에너지센터 : 이은재 대표, 조형욱 대표, 서용광 소장

□ 토의 사항 및 향후계획

- 공간에너지 실용화를 위해 2010년도에 미국, 일본, 중국, EU에 공간에너지 장치를 특허 출원한 상태로 선진국 각국에서는 공간에너지에 대해 과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금년 4월에 워싱턴에서 공간에너지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음.
- 워싱턴지역 관계자들이 이번 미국 출장시 가지고간 공간에너지 장치를 직접보고 체험하며, 이은재 대표로 부터 공간에너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들음. 실용화 할 경우 파괴 되어가는 지구 살리기와 인간성 회복, 세계평화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워싱턴지역에 본부를 두고 세계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재외한민족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협의(이은재 대표 : 재외한민족센터 공동이사장 취임 및 세계녹색은행 출범 선언)
- 버지니아 주정부 지미 리 상무차관과 마크 김 하원의원을 만나 공간에너지의 실용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 방안 요청
- 우리시 공간에너지를 실용화 방안으로는 과천시내 가로등에 공간에너지 장치를 장착 보급시켜 공기를 맑게 하여 시민들의 심성을 순화할 수 있으며, 과천을 철학이 있는 도시, 이웃이 사이좋은 도시, 나무, 풀, 인간, 건강 회복 도시로 만들고자 함. 이를 위하여 과천시를 공간에너지 특구로 조성코자 함.

□ 정책제안

○ 한민족센터와 연계한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 추진 (자매도시결연)

- 주변 환경

워싱턴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 국립공원이 있어 공원시설(캠핑장, 요트장, 수영장, 잔디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자연동식물관찰)이용이 용이하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생가 등 여러 유적지가 있음

- 전문성

한민족센터는 교육 전문가가 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어학연수와 방과 후 학교를 2004년 1월부터 연중 운영하며 공립학교 홈즈 중학교 내 코리안 클럽을 2005년부터 운영하고 교육 세미나를 50여회 실시함.

- 비용문제

타 시설 이용할 경우 고비용이나, 한민족센터와 연계하면 방학 중 대학 강당을 이용한 어학연수 가능하여 비용절감 기대

- 기타

재외한민족센터건립부지(20,000평)에 기숙사, 강의실 등 건물이 신축되면 청소년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공무 미국 워싱턴지역 방문 시 저비용으로 활용가능

○ 정보과학도서관에 영문도서·CD 비치

재한민족센터 관계자가 2010년 우리시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 실태를 둘러보고 놀랐다고 함. 국민 모두가 영어교육에 매달리고 있는데 많은 도서중에 영문도서가 보이지 않음

⇒ 도서관에 쉬운 영어 동화책, CD 등을 비치하여 두면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며 재미를 붙여서 영어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함.

□ 연수 국가 (美國) 개요

- 수도 : 워싱턴 D.C
- 인구 : 3억1백만명(2007년)
- 면적 : 9,372,615km²(한반도 면적의42.6배)



-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 북아메리카 대륙의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있음.
 - 1607년 영국이 제임스강 연안에 식민지를 조성한 이후 영국의 식민지 상태였다가 1775년 미국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 승인됨.
- 정부형태 : 연방제 대통령제
 - ※ 대통령 : 버락 오바마, 부통령 : 조비프 바이든
- 행정구역 : 50개 주와 1개 특별구(워싱턴 D.C)
- 기후 : 온대, 냉대기후 외 8개 기후구로 구성됨.
- 인종 : 다인종국가, 백색인종(87.5%), 흑색인종(11.1%), 황색인종(1.1%), 기타(0.3%)
- 종교 : 개신교(51.3%), 로마카톨릭교(23.9%), 기타(24.8%)
- 재미동포 : 1,343,500명(2006년 기준)

□ 연수 도시 일반현황

○ 버지니아 주(Commonwealth of Virginia)

- 유 래 : “버지니아” 라는 이름은 “처녀여왕”이라고 불린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를 따라 붙여졌음.
- 위 치 : 미 동부지역으로 북쪽으로 메릴랜드 주, 워싱턴 D.C와 접하며, 동쪽으로 체서피크 만과 대서양, 남쪽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테네시 주, 서쪽으로 켄터키 주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와 접함
- 면 적 : 110,862km²
- 인 구 : 7,196,750명(2006년 기준)
- 교포수 : 65,000명(2007년 기준)
- 주수도 : 리치먼드
- 역대대통령(8명) 고향
 -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먼로, 윌리엄 헨리 해리슨, 존 타일러, 재커리 테일러, 우드로 윌슨
- 생 산 물 : 농업과 수산업이 주요사업으로, 버지니아 담배는 유명함.
- 주민구성 : 아프리카계 미국인 20%이상, 유럽계 70%이상, 한국교포 다수거주
특히 애난테일에는 60,000명 거주하고 있음.

□ 한인단체 및 주요시설 현황

○ 재외한민족센타

• 설립배경

세계 한민족사회 성장과 발전에 원천인 땀과 의지, 민족혼과 애국심이 이젠 재외 한민족사회 발전과 조국통일, 민족번영으로 이어지길 소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1998. 1. 1 워싱턴에서 설립된 민간 자생단체

• 연역 및 조직 구성

- 1998. 6 : 주 정부에 비영리단체 등록

- 1998. 6 : 센터건립부지 매입(약 20,000평)
- 2003. 12 : 대한민국대통령표창 수상(제145017호)
- 2004. 5 : 건스톤코이노니아센터 에서 「재외한민족센터」로 개칭
- 조직구성
 - 이사회(이사회, 건립위원회, 후원회)
- 집행부
 - 대표, 사무국, 사업국, 교육국, 홍보국, 연구소
- 주요사업(실적)
 - 교육사업, 한민족교류사업, 문화사업, 연구사업, 출판사업
- 향후사업계획
 - 독도홍보관 건립, 시니어센터 건립, 한민족센터 건립

○ 카운티 하수처리장 현황

- 처리장 위치 : Lorton. VA
- 하수처리구역 : 북 버지니아 지역
- 일 처리규모 : 253,000톤/일
- 일처리 용량 : 170,000톤/일
- 처리 방식 : 합류식
- 유입수 BOD : 170ppm
- 최종방류수질 : BOD 5ppm
- 하수슬러지 처리 방식 : 자체 소각처리
- 시설운영 : 市 직영

□ 친환경 개념 「세계 녹색은행」 출범

- 재외한민족센터(이사장 이은재)가 9. 22일 환경오염과 생명 손상 극복을 위한 기존의 환경기술을 넘어서는 창조적 민간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재적소에 배분 하자는 이른바 「세계녹색은행」의 출범
- 워싱턴 현지 신문 게재(중앙일보) : 불 입

■ 재외한민족센터



이사장 취임식



센터 부지 전경

■ 홈즈 중학교



현 관



교장 선생님 면담



수업광경



음악시간



학생식당(교내 경찰관 1명 근무)

■ 카운티 하수처리장



처리장 입구



홍보 담당자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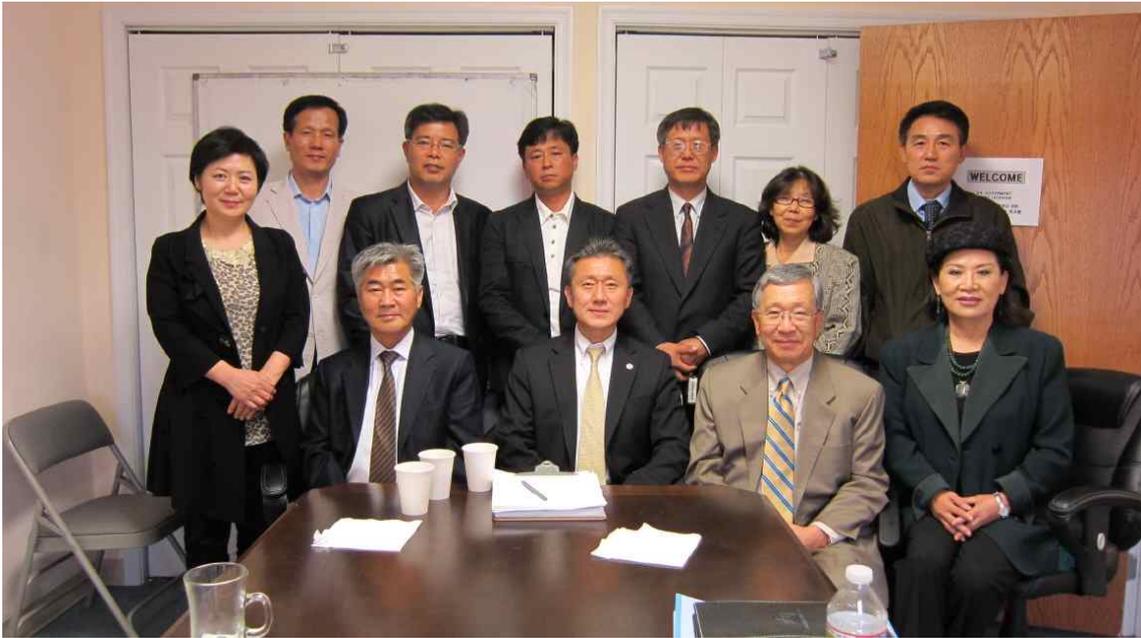


처리 담당자 설명



담당자 상호 토론

■ 주 상무차관 지미리 면담



면담후 기념사진



면담

■ 주 하원의원 Mark 김 면담





공원 벤치(철재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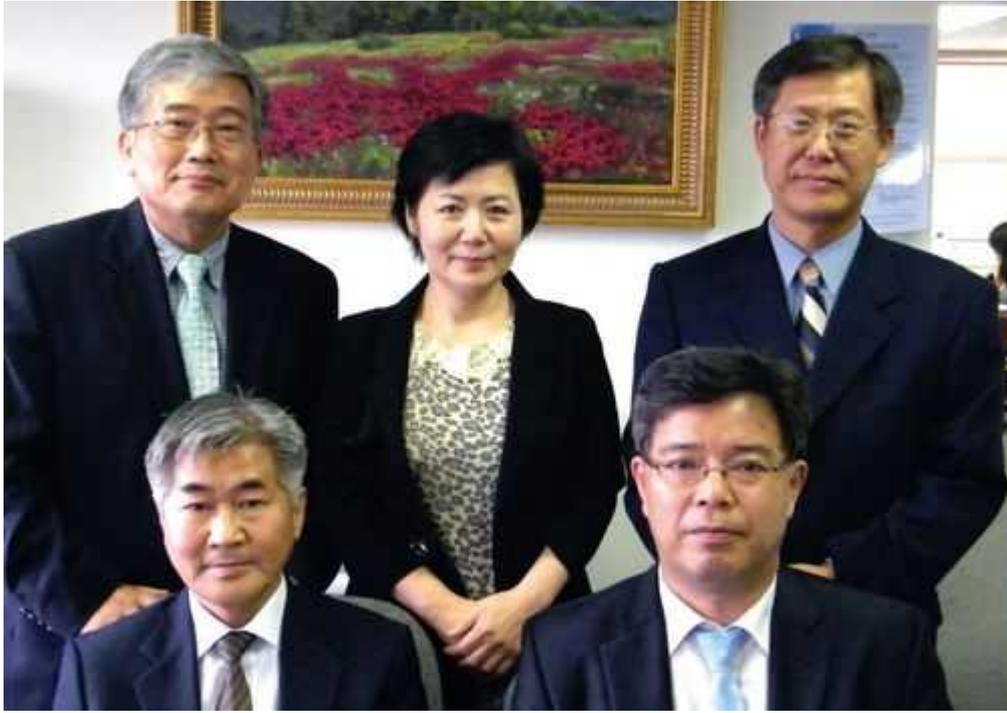
공원 벤치



횡단보도



로타리 차도



이은재 재외한민족센터 이사장(앞줄 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세계녹색은행 출범을 선언한 뒤 의지를 다져 보이고 있다.

재외구호에 그치는 환경운동이 아닌 실제적 활동으로서 녹색혁명의 가치가 워싱턴 한인 사회에서 높이 들어올려졌다.

한민족센터(이사장 이은재)가 22일 환경오염과 생명손상 극복을 위한 기존의 환경기술을 넘어서는 창의적 민간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재적소에 분배하자는 이른바 '세계녹색은행'의 출범을 선언했다.

세계녹색은행은 기존에 구호에만 그치던 환경운동이나 재벌 등 기업체가 수익증대를 위한 환경기술 적용 등의 차원을 넘어 온세계에 존재하는 친환경기술과 노우하우를 한곳에 모아 이를 실제 필요한 곳에 확산, 적용시켜나가자는 취지에서 창안된 개념이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명의 인재가 개발한 환경친화적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수익증대나 돈벌이 차원이 아닌, 전 인류가 실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은재 이사장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지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포함, 어느 정부도 대안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깃발을 한민족의 이름으로 워싱턴에서 들어올린다”고 선언했다.

이 이사장 자신도 이와관련 이미 공간에너지를 이용한 장치를 고안, 생명의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물질의 최적화를 유도해 인간에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이면서 고도기술을 개발, 상용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 이사장은 생명의 근원은 물과 공기라고 규정하고, 순환이 단절되면서 물과 공기가 탁해지고 인체에 해롭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간에너지를 근거로 한 간단하면서도 획기적인 기기로 인체의 균형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제품 개발에 혼신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한국의 과천시는 이같은 이 이사장의 개념을 도입한 친환경기술의 실제생활 접목을 시의회가 주도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시행하는 노력을 시작했다고 안중현 과천시의회 의원은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의 혁신개념을 의류에 적용, 입기만 하면 신체가 균형을 잡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직물을 이용한 의복이 한국의 조형옥 공방을 통해 시판되고 있다.

이처럼 녹색은행은 대형기업이나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무명 선각자들이 개발한 친환경, 친생명 기술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집약, 온 세계가 이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하는 종합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재외한민족센터가 이같은 가치를 내건 이유로 이 이사장은 “위대한 한민족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 인류에 유익한 행동을 중심에서 벌여나가면서 온세계 인류가 이익을 얻는 광범위한 운동에 앞장서 나간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독일 등 유럽국가 등 선각자들과 학자, 연구소 등이 동참의사를 밝혀 운동에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연말 세계 각국에서 같은 이념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이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 이사장은 소개했다.

《중앙일보 09.22 최철호 선임기자》